

교육효과와 더불어 조상의 슬기까지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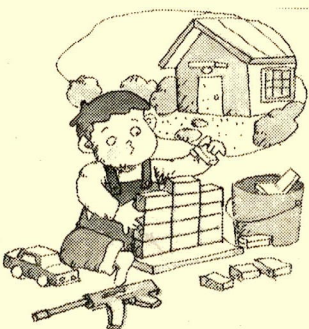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서부터 놀기에 바쁘다. 보자기를 두르고 엄마 뽀족구두를 신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빠 넥타이를 매고 아빠가 되기도 한다. 레고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뽕뽕' 거리고 거리를 질주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흉내를 내기도 한다.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을 신나게 타다보면 하루가 다 간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시시해 보이는 놀이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단순한 여러형태의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워 나간다.

빠아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새롭고 복잡한 사물이나 사건을 배우고 개념, 색상, 행동 등을 통합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였다.

요즘은 아이들이 만 3살만 되면 대부분이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면서 학습의 형태로 유도된 놀이를 경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방안 가득 넘치게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특별히 인지발달을 위해 제작된 고가의 놀잇감을 가지고 논다기 보다는 무언가를 학습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앞서있다. 놀이는 우선 즐겁고 신나야 한다. 그러는 가

운데 몸과 마음과 머리가 살찌고 튼튼해 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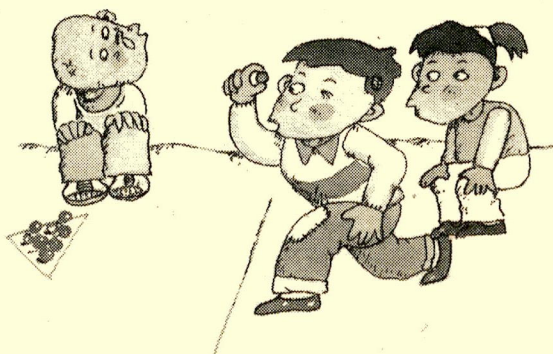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옛 놀이는 남자들만 하는 놀이, 여자들만 하는 놀이, 남녀 구별이 없는 놀이 등



이 있으며 대체로 여럿이 함께 하는 집단놀이의 형태이다. 목적물을 맞추면서 노는 비석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그리고 서로 시합을 하는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공기놀이, 땅따먹기, 사방치기 그리고 숨바꼭질, 옷놀이, 고무줄놀이 등 부모들의 어린시절을 장식했던 재미있던 놀이들이다. 그저 즐거워서, 신나서 놀았던 놀이들이었고 이제 너무 다채로운 놀이문화로 인해 묻혀버린 것들이 그 교육적 가치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비

석치기나 구슬치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놓여있는 목적물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개념, 힘과 속도의 관계를 터득하게 된다. 그리고 게임을 함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게임에 이겨 갖게 된 구슬을 세어야 하기 때문에 수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공기놀이도 수에 대한 개념을 알게되고 공기들을 어느 정도 거리로 던지고 그동안 손가락으로 공기들을 잡아야 하므로 공간개념을



알게되고 소근육 운동이 이루어진다.

땅따먹기는 작은 표시물을 두 손가락으로 쳐서 세번만에 자기 영역으로 표시물을 집어넣어 자신의 땅을 넓혀 가는 놀이다. 이 놀이 역시 두 손가락으로 표적물을 쳐 내는 것을 하게 되

므로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손과 눈의 협응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한 공간 안으로 표적물을 들여보내야 하기때문에 공간개념과 넓이개념을 알게 된다. 사방치기는 땅바닥에 사방치기판을 그려놓고 말(납작한 돌맹이를 이용)을 이용해 1단에서 9단까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앞의 것들과는 달리 주로 다리를 이용한 게임이고 한발로 뛰기, 두발로 뛰기, 멀리 뛰기, 돌며 뛰

기 등 대근육활동이 이루어지며, 말을 다음 칸으로 밀어 차거나 손으로 일정한 칸으로 던지는 등 높은 수준의 공간개념을 학습시킨다.

이밖에도 다양한 놀이들이 모두 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이고 동생부터 형까지 함께 어울

릴 수 있는 놀이이므로 소근육 발달이나 수개념과 공간개념 외에도 규칙을 지키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므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인식하게 되고 놀이속에서 경쟁과 협동을 배운다. 이렇듯 전통 유아놀이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고도의 교육적 수준을 갖춘 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노는 가운데 조상의 슬기와 열이 내재화 된다는 것이다.

전통 놀이들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누구와 어울려서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지만 요즘 환경에서는 많은 제재가 따른다. 흙마당이 없고 '말'이나 공기들을 할만한 변변한 돌맹이도 구하기 어렵다. 이미 아이들이 현란한 색이 들어있는 놀잇감과 오락기, 비디오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지적 가치가 높은 훌륭한

한 놀이형태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그러한 놀이를 찾지는 않는다. 그리고 도시의 집 밖은 너무도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모래가 깔려있고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에서 놀 수 밖에 없다. 동네 놀이터에 운동장이라도 있으면 큰 형들이 공차기를 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안심하고 바깥놀이를 즐기기는 정말 어렵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시대와 환경에 맞아야 하고 더더욱 놀이는 아동이 신나고 즐거워 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어려서 재미있게 하던 놀이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리집의 가족 놀이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놀이로 전통놀이중 하나를 선택해 보는 것이다.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옷놀이?, 제기차기?